

제주 항몽유적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김 일 우**

The Historicity of the Site of Anti-Mongolian Resistance in Jeju and the Proposal of Producing it into Cultural Content*

Kim, Il-Woo**

Abstract

It is effective to study the historicity of the Site of Anti-Mongolian Resistance from a multilateral perspective. First of all, this historic site has a huge implication in contributing to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nd its culture, and the maintenance of its independence and as a passage linking the histories of east asian countries.

Additionally, it has higher degree of organic combination with the national history than that of any other historic remains in Jeju as well as the historicity as a channel where one can meet the identity and the uniqueness of Jeju's history and culture.

Besides, as much as they are considered quite meaningful from archeological and art historical points of view because of their favorable preservation state for the 13th century, they have high value as historic sources vividly elucidating the 13th century history and culture of Koryo Dynasty.

That is, based on the above points, it can be said that this site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historic remains in Jeju. It is also noteworthy that in terms of securing space for implementing the plan to develop its culture

*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최 “사적 제396호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활용방안 모색 심포지움”(2015. 03. 23.)에서 발표한 글(「제주 항몽유적지의 역사성과 오늘날의 가치」)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장/이사장(President, Jeju Research Institute Sharing History and Culture Corp)

content, this area, together with the presence of the fortress itself, has a much more suitable condition compared to any other site in that a considerable part of Jeju Hangpaduri Anti-Mongolian Remains and its vicinity is public land with private houses and shopping centers being rare.

In short, in order to cultivate this site into cultural content, it would be suitable to create cultural resources coupled with the local history, the scenery and the ecosystem of Jeju, involving the nation's resistance history against foreign forces and cultural homogeneity with the east asian history, expanding this live educational ground.

Key words: Koryo's Anti-Mongolian Resistance(고려의 대몽항전), the Historicity of Jeju Anti-Mongolian Remains(제주 항몽유적의 역사성), the Mongol Period(몽골의 시대), Jeju's Geopolitical Position(제주의 지정학적 위치), the Perspective from the East-asian History(동아시아적 관점), the Conversion into Cultural Content(문화콘텐츠화), the Identity of Jeju's History, Scenery and Eco-system(제주 역사·경관·생태의 정체성)

1. 머리말
2. 제주 항몽유적의 역사성
3. 제주 항몽유적의 분포상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0여 년에 걸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었다. 이 가운데 침략이 가장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끈질긴 항쟁을 벌였던 것이 고려의 대몽항쟁이다. 이는 4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거니와, 우리나라의 외세항쟁에서 가장 주목되는 역사라 하겠다.¹⁾

1)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관점에 따라 긍정적, 혹

특히, 제주는 고려 대몽항쟁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이렇게 된 데는 제주의 지형학적 위치가 크게 작용했다. 제주가 동북아를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에 위치했던 지라, 삼별초와 고려의 개경정부 및 몽골세력이 모두 선점하려고 경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려의 개경정부 및 삼별초와 몽골세력이 잇달아 제주로 들어왔다.²⁾ 이때 몽골 경우는 제주를 남송·일본정벌의 전초기지로 경영코자 눈독을 들이던 참에 직접 제주 정복에 나섰던 것이다. 이로써 고려 대몽항쟁의 마지막 결전이 제주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결전도 3자가 긴 제주 삼별초와 여·몽연합군 간에 벌어졌다. 그 결과 제주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항파두성이 함락됨으로써 몰락했고, 고려의 대몽항전도 종식됐다.

제주 삼별초는 고려의 마지막 향몽세력이며, 항파두성은 고려의 마지막 향몽거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항파두성과 그 주변 향몽 관련 유적이 ‘제주항파두리 향몽유적지’라는 이름으로 1997년에 사적 제396호로 지정됐다. 이밖에도 제주의 대몽항쟁 관련 유적은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제주 북반부의 동·서 양측으로 약 43km 거리에 걸쳐 있듯이, 매우 길고, 또한 광범위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³⁾ 이들 제주의 향몽유적은 크게 바·물 관련 식·생활용수, 망대와 진지, 포구, 기타 등의 4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⁴⁾ 이들의 수도 26여 곳에 달하고 있는

은 부정적 평가를 받아오곤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장 최근에 정리된 연구로는 윤용혁(2014), 「13세기 동아시아사와 삼별초」(『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혜안, 48~58쪽)를 들 수 있다.

- 2) 김일우(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58~278쪽.
김일우·이정란(2002),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 『제주도사연구』 11, 19~24쪽.
김일우(2008),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145~159쪽.
- 3) 김일우(2002), 「항파두리성 밖 향몽 관련 유적지의 보존·정비·활용 방안」; 정광중(2002), 「향몽 유적지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적 특성」(이상, 북제주군·제주문화예술회관 문화재단연구소, 『제주 항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 수록).
- 4) 제주의 향몽유적은 항파두성, 성내유적, 물 유적, 기와가마, 망대와 진지, 포구, 관련유적, 유물과 같은 형태로 나뉘보거나(제주도(1998), 『국가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주 항파두리 향몽유적지』, 제주도, 76~125쪽), 혹은 포구유적, 성지유적, 진지·망대유적, 생활문화유적으로 구분해 분류하기도 한다(정광중, 앞의 글, 37~42쪽). 이들 경우는 항파두성과 그 내외의 향몽 관련 유적을 다 포괄해 파악·분류하고 있는 반면, 본고는

만큼, 다양하고 풍부하다.

제주 항몽유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정비와 활용 방안이 제시된 적도 있었다.⁵⁾ 그럼에도, 이들이 지닌 역사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고 하겠다. 이에 제주 항몽유적의 역사성을 다각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편, 문화의 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문·자연적 환경을 문화자원화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때문에 제주에서도 항몽유적이라는 테마를 내세워 인문·자연적 환경의 문화자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제주의 항몽유적이 오늘날에 지닌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제주의 항몽유적 관련 문화콘텐츠화의 방향과 내용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제주 항몽유적의 역사성

1) 국제적 관점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와 그 밖의 항몽유적은 일 국가의 관점에서 벗어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애초, 몽골의 고려 침략도 고려 정복만을 노렸던 것은 아니었다. 몽골의 제주 삼별초 정벌도 고려의 마지막 항몽세력을 겨냥했던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또한 삼별초의 제주입거도 돌발적 상황이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몽

항파두성과 그 성내의 항몽유적, 이를 제외한 항파두성 밖 항몽 관련 유적으로 대별해 보고자 한다.

- 5) 제주 항몽유적은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를 중심으로 보존 관리 방안 및 정비·복원과 관련해 용역이 수차례 이뤄졌고, 그 보고서도 여러 번 나왔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북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2002), 앞의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2006),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2008), 『탐라문화권발전기본계획』,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2009), 『탐라문화권발전세부계획』,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시·(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2),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제주역사문화진흥원.

골이 전개한 세계정복사업의 추진 및 그 역학관계라는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겠다. 그런 만큼, 제주 항몽유적도 국제적 관점에서 역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13세기부터 14세기 후반 무렵은 몽골의 시대라 할 수 있다.⁶⁾ 몽골은 13세기 초반부터 발흥하기 시작해 중국 대륙과 고려 및 安南 지역 등의 동아시아를 비롯해 유라시아 지역에 걸쳐 100여 년 동안 몽골제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형성했다. 이때 몽골은 유사 이래 단일국가로서 최대의 판도를 이루었다. 이르는 동안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고, 이에 맞서 고려는 40여 년 동안 대몽항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몽골의 고려 침략은 중국 대륙의 金 및 宋에 대한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한편, 고려를 징검다리로 동쪽 끝 일본 열도로의 진출과도 연결되어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고려의 대몽항전도 우리나라 일 국사의 관점이 아니고, 국제적 관점, 특히 동아시아 전체사의 시각에서 조망해야 할 것이다.

몽골이 제주 삼별초 정벌에 나섰던 일도 국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제주 지역은 원종 14년(1273) 몽골의 직할령으로 편입됐다. 이후 100여 년 간 몽골족의 제주경영이 이루어졌다.⁷⁾ 이렇게 된 데는 제주 삼별초의 몰락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몽골의 제주경영은 제주 삼별초 몰락 이전부터 이미 계획·추진되었던 일이기도 했다. 이는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원종 8년(1267)에 자신의 조정으로 제주 屋主를 불러들여 알현했던 일로부터 엿보인다. 또한 쿠빌라이가 제주 성주를 불러들였던 것은 제주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가 남송과 일본을 잇는 해상의 요충지에 자리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몽골은 제주를 남송과 일본정벌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몽골이 제주 삼별초 정벌에 나섰던 일은 13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몽골의 남송·일본정복사업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고, 몽골의 제주경영은 삼별초의 제주 진입과 몰락이 아니더라도 예견되었던 일이라 하겠다. 곧, 제주가 몽골의 직할령으로 편입되었던 사실은 우연, 혹은 돌발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삼별초의 제주입거도 국제정세의 역학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별초는

6) 윤용혁, 앞의 책, 31~48쪽.

7) 김일우, 앞의 책, 259~385쪽.

강화도에서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그래서 삼별초 정부가 진도에 자리 잡은 뒤, 제주 지역을 배후 거점으로 확보하고, 진도 함락 뒤에는 잔여 삼별초 세력이 제주에 들어왔다. 이로써 제주는 고려의 마지막 항몽거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주가 마지막 항몽거점이 되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거나, 우연할 일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었던 일이라 하겠다. 곧, 제주는 무신정권 말기 3차례나 대몽항쟁을 이끌 어갈 정부가 들어설 후보지, 또한 항몽의 마지막 거점으로 진작부터 거론되어 왔었던 곳이기도 했던 것이다.⁸⁾ 이는 무신집정자가 남송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의 요지에 위치했던 제주에 근거지를 잡은 뒤, 이들 양국과 더불어 대몽연합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과 연계된 듯싶다. 이와 관련해서는 삼별초가 진도로 항몽거점을 옮긴 뒤 일본에 사신을 보내 항몽연합전선을 꾀했던 사실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삼별초의 대몽항전이 몽골군의 일본 침략을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만일 고려의 끈질긴 대몽항전이 없었다면 분명 몽골군의 일본 침략은 훨씬 조기에 추진되었을 것이고, 그러했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⁹⁾ 또한 나가사키 현 다카시마 연안 출토 유물 중에는 흑갈색 도기가 다수 인양됐다. 이는 대몽항전이 전개됐던 강화도와 제주도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른바 ‘몽골병’과 유사하다. 이들 도기는 편년이 삼별초, 혹은 그 직후 시기로서 13세기 말 경 몽골세력의 확산과 관련을 갖는 유물이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오키나와의 고려기와가 삼별초 이주 집단에 의한 것이라는 추론도 나왔다.¹⁰⁾ 이는 오키나와의 우라소에성[浦添城] 유적 출토의 고려기와 중 ‘癸酉年高麗瓦匠造’라는 명문 기와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계유년에 대해서는 1153년, 1273년, 1393년으로 보곤 했는데, 1273년이라는 설이 제기됐던 것이다. 이 견해는 1273년이 바로 제주 삼별초의 패망시기였던 만큼, 제주 삼별초가 패망한 뒤 그 일부가 보트 피플이 되어 외양으로 빠져 나갔

8) 윤용혁(1994), 「삼별초의 봉기와 남천(南遷)에 관하여」,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상, 일조각, 833~843쪽; 김일우, 앞의 책, 251~257쪽.

9) 윤용혁(2004), 「13세기 동아시아 역사와 “삼별초” 문화」, 『강화·진도·북제주군 제4차 “삼별초” 학술세미나』(기조발표문), 북제주군, 19~20쪽.

10) 윤용혁, 앞의 책, 308~312쪽.

고, 이들 집단이 오키나와 계유년 기와의 제작자라 보고 있다. 이에 제주 삼별초의 대몽항전과 그 유물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와도 무관치 않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제주 향몽유적은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는 한편, 삼국의 문화적 교류도 대면하는 통로로서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로써 제주 향몽유적은 국제적 관점의 접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이 드러난다. 이는 이들 유적이 13세기부터 동아시아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세계대제국을 형성했던 몽골과 관련해 파생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2) 국가적 관점

제주 향몽유적은 고려의 마지막 향몽세력인 삼별초와 관련해 생겨났다. 이들 유적이 지닌 역사성은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한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삼별초의 항몽활동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우리 민족국가의 존립도 감안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¹¹⁾

고려사 연구 가운데 삼별초 항쟁에 대한 평가만큼이나 난해한 주제는 별로 없다. 삼별초를 반역자 집단으로 평가하는 전근대적이며 고전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고려인의 전통적인 민족의식의 발로에 의해 비롯된 민족항전”이라고 추겨 세우는 관점도 있고, “삼별초의 항쟁은 민족 정신사에 남을 뿐 현재적 실익은 아무 것도 없었다.”¹²⁾고 보고 있기도 하다.¹³⁾

그동안의 연구물을 일람해 보자면, 초기 연구들은 몽골에 끝까지 대항한 삼별초 항쟁을 민족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높이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무신정권에 의해 주도된 대몽항쟁도 같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후 무신정권의 대몽항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삼별초의 대몽항쟁에 대한 평가도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11) 김일우·이정란, 앞의 글, 25~27쪽.

이 절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위의 연구를 많이 참조했다.

12) 이이화(1999), 「몽골의 침략과 30년 항쟁」, 『한국사 이야기』7, 한길사, 115쪽.

13) 윤용혁(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75~293쪽.

사실, 강화도 천도의 단행은 최씨무신정권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무신집정자 崔瑀가 자신의 정권을 보존·유지코자 행한 조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무신정권은 몽골과의 1차 전쟁에서 패배하자, 향후 대몽침략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도 세우지 않은 채 강화도 천도를 단행했던 것이다. 육지에 남아 있던 백성들에게는 가까운 섬이나 깊은 산 속으로 도망하라는 入保策만을 제시한 채, 자신들은 강화도에서도 여전히 사치행각을 계속했다. 이는 자신의 정권안위를 위해 백성을 버린 행위였고,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몽골군에게 피살됐다. 최씨정권이 주도한 항몽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곧 바로 삼별초 항전의 의의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즉, 삼별초는 최씨정권의 사병적 성격이 농후한 군사조직임으로 삼별초 대몽항전도 무신정권에 의한 대몽항쟁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들 상반된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삼별초와 무신정권을 대몽항쟁의 동일한 주체로 파악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삼별초가 무신정권의 군사력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삼별초 항쟁을 무신정권이 펼친 항몽책의 연장선으로 간주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삼별초군과 삼별초 항쟁의 구성원은 단일하지 않다. 원종 11년(1270) 이후 4년간 지속된 대몽항전은 삼별초 항쟁으로 명명되고 있기는 하나, 그 구성원에는 많은 일반민도 존재했다. 게다가 삼별초 가운데 神義軍이 무신정권을 붕괴시키는데 동원됐는데, 이들은 몽골의 포로, 혹은 부모·형제가 몽골군에 의해 피살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 신의군은 무신집정과의 사적인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삼별초 항쟁은 삼별초군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항쟁을 곧 바로 무신정권이 펼친 항몽책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삼별초 항쟁은 참여 구성원이 다양하듯이, 다각적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¹⁴⁾ 삼별초라는 용어에 매몰되어 삼별초 항쟁의 구성원을 직접 무신정권의 군

14) 삼별초의 대몽항전에 대한 다각적 검토의 필요성은 민현구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가 있다. 특히, 그는 “삼별초란을 반역으로 규정한 왕조시대의 인식방법이 그릇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삼별초란으로 귀착되는 대몽항쟁만을 몽골의 침입에 대응한 정당한 자세로 보고, 그와 대결한 김방경과 고려 조정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결코 타당한 입론이 될 수 없다.”고도 하였다(민현구, 『蒙古軍·金方慶·三別抄』, 『한국사

사력으로 연결시켜 항쟁의 의의를 부정하는 평가나,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한 대몽항쟁만을 강조하다가 무신정권에 의해 주도된 항몽책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해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보다는 삼별초 항전의 진행과정과 구체적 내용 속에서 드러난 민중적 성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해야만 긍정적이며 편협하지 않은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¹⁵⁾

사실, 삼별초의 경우는 무신정권 몰락 이후 몽골과의 강화를 거부하고, 그 대신 ‘반몽구국’의 기치를 내걸자, 수많은 일반민들이 집결해 끝까지 몽골과 항전했다. 이를 보더라도, 삼별초 항쟁은 국가사적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삼별초 항쟁을 이해하는데 또한 중시해야 할 것은 삼별초의 끈질긴 대몽항쟁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이는 삼별초 항쟁을 “민족 정신사에 남을 뿐 실익은 아무 것도 없었다.”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고려의 대몽항쟁은 고종 18년(1231) 몽골의 침략으로 시작되었다가 원종 14년(1273) 제주 삼별초가 몰락함으로써 40여 년 만에 그 막을 내렸다. 삼별초 대몽항전의 실패는 정치세력에 있어서 반몽적 정치세력의 일소와 친원세력의 득세, 대외관계면에서는 국가의 자주성이 크게 손상될 정도로 몽골이 고려 내정에 깊이 간여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로써 원 간섭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고려는 몽골의 수많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대몽항전의 종식은 고려가 온갖 공물과 수많은 동녀 등을 몽골에 바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으며, 몽골의 일본정벌에도 동원되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것이다.

삼별초 대몽항쟁의 실패는 정치적으로 몽골의 복속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시민강좌』 8, 1991, 104쪽).

15) 강진철은 지방 농민과 노예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졌던 몽골과 정부의 이중적 압력의 해방자로서 삼별초에게 기대를 걸었고, 이 때문에 삼별초는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고 봤다(강진철, 「몽골의 침입에 대한 항쟁」.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4, 389쪽). 한편 이익주는 “삼별초 항전이 갖는 의미는 강인한 민족정신 등으로 설명될 것이 아니라, 고려 지배층과 몽고의 결탁에 반대하는 일반민의 저항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고 함으로써, 삼별초 항전의 역사적 의의를 ‘민족항쟁’이 아닌 ‘민의 항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이익주, 「고려후기 몽고침입과 민중항쟁의 성격」, 『역사비평』 24, 1994, 269쪽).

16) 김일우 · 이정란, 앞의 글, 9~15쪽

빛어냈다. 그러나 고려가 세계제국 건설에 나섰고, 종내 유사 이래 단일국가로 최대의 판도를 형성한 몽골에 끝까지 저항해 복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하겠다. 혹 그럴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었다라든가 그에 따른 인명과 재산 손실이 광대했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려가 몽골에 복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면, 어떠한 형태로 복속되느냐만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는 끈질긴 항쟁을 통해 몽골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삼별초의 끈질긴 대몽항쟁이 맺은 결과물은 매우 의미가 크다. 삼별초의 끈질긴 항쟁은 고려가 여타 몽골의 복속국과는 다른 몇 가지 예외적 조치를 끌어내는데 일조했다. 즉, 고려왕조가 몽골에 직접 복속되지 않은 채 왕조 자체를 유지하고, 고유의 풍습을 지킬 수 있었음은 삼별초의 대몽항쟁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고려왕조의 몽골 복속 형태는 고려가 40여 년 간 지속한 대몽항쟁의 열매였다. 그러나 삼별초 항쟁이 고려의 대몽항쟁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다면 고려의 몽골 복속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봄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 삼별초의 끈질긴 항몽전은 고려왕조가 몽골의 여타 다른 복속국과 달리 왕조와 그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몽골의 부마국으로서의 지위까지 보장받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삼별초 항쟁의 평가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기도 하다.

결국, 제주의 향파두성과 그 밖의 향몽유적은 오늘날 우리의 민족국가와 그 문화가 존립하고, 자주적으로 이어 나아가는데 기여한 통로로서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제주의 지역적 관점

제주 향몽유적은 제주 지역이 우리나라 역사 서술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케 하고, 또한 100여 년 동안 제주 사람과 몽골족이 더불어 사는 일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통로로서의 역사성도 지니고 있다.

우선, 제주 향몽유적이 국사 서술과 관련해 지니는 역사성을 살펴보겠다.

통상, 일 국가의 역사서술에서 가장 주요한 줄거리이자 뼈대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외항쟁사이다. 국가의 대외항쟁사는 국사 서술에서 빼놓을 수 없고, 국사교육에서도 우선시되는 주제임에 분명하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끈질기고, 장기적으로 전개됐던 외세항쟁은 40여 년 간 지속된 고려의 대몽항쟁으로 본다. 특히, 고려의 마지막 항몽세력은 제주 삼별초였고, 마지막 항몽거점은 제주 삼별초가 웅거하다 여·몽연합군에게 함락된 항파두성이었다.

한편, 몽골의 경우는 원종 8년(1267)부터 제주 성주를 조정으로 불러들이는 등 제주경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때는 삼별초의 대몽항쟁이 일어나기 전이었다. 고려 왕정의 개경정부도 삼별초가 원종 11년(1270) 8월 진도로 들어가자, 관군을 보내 제주 장악에 나섰다. 그리고 진도 삼별초 경우는 원종 11년(1270) 11월 제주로 군대를 보내 개경정부의 관군을 제치고, 제주를 항몽의 배후기지로 확보했다.

고려 대몽항쟁기의 막바지 때 삼별초와 개경정부 및 몽골은 제주 선점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고, 종내 삼별초가 제주 지역을 장악했던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제주가 동아시아를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곧, 몽골은 세계정복사업의 일환으로 남송과 일본을 정벌할 때 제주 지역을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했고, 삼별초는 일본과 대몽연합전선을 도모하고자 제주 지역 확보에 나섰다. 그리고 개경정부는 삼별초의 의도를 알아채고, 관군을 제주로 보내 방어케 함으로써 삼별초의 제주 진입을 막고자 했다. 그런 만큼, 제주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결국,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제주 삼별초를 고려의 마지막 항몽세력, 또한 항파두성을 마지막 항몽거점이라는 위상을 부여하는데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외항쟁사에서 제주 지역을 도저히 빼놓을 수 없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국사와 제주사의 관계에서 제주 삼별초의 존재와 대몽항쟁을 보자면, 제주에서 일어났던 일이 처음으로 국사와 직결, 그것도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제주의 항파두성과 그 밖의 항몽유적은 제주 지역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정면으로 등장하는 첫 통로가 되는 역사성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육지부 문화의 이입을 엿볼 수 있는 통로라는 역사성도 찾아볼 수 있다.

삼별초의 제주입거는 그 이전 제주 진입의 외부세력 중 가장 규모가 컸을 것이

다. 이들 경우는 성곽과 아울러, 관아 및 사원 등 주요 건물을 최고의 기술자에 의해 짓고, 선진의 농업 기술도 전해주었기에 제주문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이는 항두성내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항파두성은 100여 년 동안 제주 사람과 몽골족이 더불어 사는 일의 단초를 제공했던 역사성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겠다.¹⁷⁾

몽골은 원종 14년(1273) 고려와 연합해 제주 삼별초 정벌에 나아가 이들의 거점 항파두성을 함락하고, 이를 계기로 제주를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았다. 이후 몽골의 제주경영은 최영장군이 제주 牧胡勢力을 평정하는 1374년까지 100여 년 동안 지속됐다.

애초 몽골은 침략자로 제주에 들어왔고, 제주 사람은 몽골의 세계정복사업에 집단포로와 같이 동원되어 혹사당했던 예 등과 같이, 제주 사람과 몽골은 대립·갈등관계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몽골과의 교류로 우마사육이 제주의 전통적 산업으로 뿌리내려 경제력이 신장됐으며, 외부인이 제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등과 같은 제주사회의 규모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많은 몽골족이 제주에 들어와 정착하고, 이들 일부와 제주 여성 간의 혼인도 이루어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제주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제주사회의 규모 확대는 행정단위의 확대와 분화가 이루어지는 계기로 작용했고, 그 행정단위 명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제주의 산촌 형성도 제주와 몽골의 첫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목축업의 번성 때문에 가능했다. 제주문화도 몽골적 요소와 융합되었다. 이는 제주어 가운데 몽골어 차용의 예를 10여 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고소리술’이 현재 제주의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¹⁸⁾ 고소리술은 제주의 전통주이거니와 소주에 속한다. 소주의 증류법은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뒤, 몽골로 유입되고, 이후 소주가 몽골의 정복사업과 세계제국 건설에 따라 동아시아권 등에 유포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17) 이하의 논의는 김일우(2003),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한국사학보』 15)의 연구내용에 의존해 서술했다.

18)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286쪽.

그동안 제주와 몽골이 가졌던 첫 교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대립·갈등관계로 봤고, 그것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거나, 극소화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내세운 역사관과 아울러, 몽골 제국 몰락 이후 오랜 세월 동안 漢族을 중국지배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족은 오랑캐로 보는 華夷論이 넓고, 깊게 이어져 내려온 영향 등이 크게 작용했을 듯싶다. 반면, 국가와 민족단위가 아니라 제주의 대외관계 및 제주 사람의 생활문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제주와 몽골의 첫 교류는 제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이는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제주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및 일본 열도 지역 등을 잇는 중간적 지점이고, 멀리 동남아 지역으로도 열려 있는 해상에 자리잡고 있다. 제주를 주변 지역과 교류가 잦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제주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및 일본 열도 지역 등과 잦은 교류를 가졌던 한편, 이들 지역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로 주목되어 왔었고, 이 때문에 격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제주문화도 다양한 경로의 외부문화가 수용되어 토착화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예의 하나가 13세기 후반부터 100여 년 동안 교류가 이루어졌던 제주와 몽골문화의 경우이고, 이것의 직접적 계기이자, 단초가 되었던 것이 제주 항파두성의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 만큼, 항파두성을 비롯한 제주의 항몽유적은 제주·몽골의 만남과 그에 따른 제주사회의 변화도 엿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역사성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제주의 항파두성과 그 밖의 항몽유적은 제주 도내의 그 어느 역사유적보다도 우리나라 역사와의 유기적 결합도가 높은 한편, 제주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그 독특함을 대면할 수 있는 통로라는 역사성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고고학·미술사적 관점

제주의 항몽유적·유물은 절대 편년에 가까운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고학·미술사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자못 크다.

역사유적·유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이들이 사용, 혹은 출현했던 시기인데, 제주의 항몽유적·유물은 연대가 거의 분명한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¹⁹⁾ 이는 제주의 향몽 관련 성곽, 건물터, 도자기, 기와, 무기 등은 고려시대 성곽, 건축, 도자기 등의 연구에 매우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 향몽유적·유물이 절대연대에 가까운 편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향파두성의 사용 시기가 매우 짧은 기간에 한정됐다는 역사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곧, 제주의 향몽유적·유물은 13세기 당시의 보존도가 높은 유적인 것이다.

근래에도 향파두성에서는 13세기 당시의 생활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유물이 나왔다. 2011년 향파두성내 속칭 ‘대궐터’의 시굴조사에서 ‘고누놀이판’이 출토된 것이다.²⁰⁾

고누놀이는 바둑과 장기의 원시적 형태, 혹은 윗놀이와 같은 것으로 고누판에서 한 칸씩 말을 움직여 상대방 말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승부가 갈리는 놀이였다. 고누놀이판은 10세기 초 황해도 봉천군 원산리의 청자가마터에서 출토됐고, 조선시대 때 전라도 담양에 세운 瀟灑園의 마루에도 그려져 있음이 확인된다. 고누놀이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래되어온 전통놀이였던 것이다. 향파두성내 ‘대궐터’의 고누놀이판 출토는 고누놀이가 통일신라시대 이래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계승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또한 제주 삼별초 경우도 전쟁의 외증이기는 하나, 고누놀이와 같은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일상적 삶을 살았음을 보여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대궐터는 향파두성내 17곳 건물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물, 또한 가장 돋보이는 고급유물을 사용한 시설물이 들어섰던 곳으로 드러난다.²¹⁾ 이에 대궐터는 김통정장군 등 제주 삼별초 지휘부의 건물이 설치되었던 곳이라 한다. 고누놀이판의 대궐터 출토도 고누놀이가 지휘부에 속한 소수의 삼별초군이 즐겼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이라 하겠다.

요컨대, 제주의 향몽유적·유물은 13세기 당시의 보존도가 높아 고고학·미술사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13세기 고려의 역사문화를 생생히

19) 윤용혁(2014), 앞의 책, 54~58쪽.

20) 제주고고학연구소(2011), 「사적 396호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2차) 간략보고서」, 62쪽.

21)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2), 앞의 보고서, 53~72쪽.

해명하는 통로로서의 역사성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제주 향몽유적의 분포상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1) 향파두성과 성내 향몽유적

향파두성은 제주 향몽유적 가운데 가장 중추적 위상을 차지한다. 제주 삼별초의 향몽활동, 더 나아가 고려의 대몽항쟁도 향파두성이 여·몽연합군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종식됐던 것이다. 이어 제주가 몽골의 직할령으로 들어갔고, 몽골족의 제주경영이 100여 년 동안 지속됐다. 향파두성은 제주가 한때나마 몽골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했던 것이다.

오늘날에 와 향파두성과 그 주변 향몽 관련 유적이 ‘제주향파두리향몽유적지’라는 이름으로 1997년 사적 제396호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향파두성만이 존재감을 드러낼 뿐, 성내에 자리잡은 향몽 관련 유적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아니, 주목은커녕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현재, 향파두성의 성내 향몽 관련 유적은 확인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대궐터’, ‘검성이왓[劍師田], ‘장군이왓[將軍田], ‘돌쩌귀’, ‘장탈’, ‘기와가마터’, ‘안오름 망대’, ‘웅성물’, ‘구시물’ 등과 같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궐터’: 김통정 등 제주 삼별초 지휘부의 本營이 들어선 시설물이 있었던 곳으로 전해진다. 여기는 1973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정리가 이뤄지는 한편, 1978년 ‘향몽순의비’도 세워졌다. 지금은 전 시관과 관리사무소도 들어서 있고, 향몽순의비 외곽으로凸자 형태의 돌담장이 70cm 폭으로 설치되어 있다. 통상, ‘내성’으로 일컬어왔었던 곳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궐터는 2011년에 시굴조사가 이뤄졌다. 그래서 다른 곳과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고급유물이 수습됐다. 곧, 상감청자의 접시·잔과 중국제 자기 등이 출토됐던 것이다. 특히, ‘고누놀이판’도 나왔다.

원래 ‘대궐터’라 함은 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들어선 곳을 말하나, 제주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주 경우는 왕이 거처하던 궁궐이 지어진 적이 없었음에도, 속칭 ‘대궐터’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들의 예로는 서귀포시 강정·서홍동의 ‘대궐터’도 들 수 있다. 이들 대궐터의 공통점은 주변 일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기와와 아울러, 고급 청자와 자기 등과 같은 상급유물이 출토되곤 한다. 그런 만큼, 제주 지역에서 속칭 ‘대궐터’라 함은 주변 일대에서는 가장 커다랗고, 위용스런 건물이 들어섰던 곳이란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겠다.²²⁾ 내성지의 대궐터도 항파두성의 17곳 건물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물, 또한 가장 돋보이는 고급유물을 사용한 시설물이 들어섰던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대궐터는 제주 삼별초 지휘부의 본영이 설치되었던 곳이라 한다.

한편, 삼별초가 애초에 왕을 옹립했으나, 제주 삼별초가 항몽 활동을 전개할 때는 이들의 왕이 존재치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몽골과의 강화를 맺은 고려의 왕정, 곧 개경정부에 반기를 들고 새로이 삼별초정부를 수립했다. 이때 삼별초는 승화후 온을 왕으로 옹립하고, 항몽거점을 진도로 옮아갔다. 이후 온은 진도 삼별초가 항몽거점으로 삼았던 용장산성이 원종 12년(1271) 5월 여·몽연합군에게 함락될 때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다. 곧, 김통정이 진도 삼별초의 잔여 세력을 이끌어 제주로 들어오고, 이어 시작했던 항파두성 축조는 모두 승화후 온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의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항파두성의 성내 대궐터 경우도 제주에서 통상적으로 일컫듯이, 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들어섰던 곳이 아니고, 성내에서 가장 커다랗고, 위용스런 건물이 들어섰던 곳이라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최근에 들어와 대궐터를 ‘궁성’으로 칭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제주 삼별초에게 왕이 존재했음을 연상케 하는 용어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종전처럼 주변 일대에서 가장 커다랗고, 위용스런 건물이 들어섰던 곳을 뜻하는 대궐터라 하거나, 혹은 ‘대궐터’에 들어섰던 건물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해 총지휘자 및 지휘 본부가 있는 軍營을 뜻하는 ‘本營’이라 칭함이 어떨까 한다.

22) 김일우(2015), 「제주 강정동 ‘대궐터’ 유적의 역사적 성격- 고려시대 몽골의 제주지배 기와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60, 388~140쪽.

‘대궐터’ 외에도 군 막사, 물자 보관 창고, 무기고, 일반 민가도 향파두성내에 들어섰다. 이는 현재 발굴조사와 구전 및 지명을 통해서 확인되는 17개소의 건물지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향파두성내의 시설물은 좀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발굴조사를 거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 ‘검성이왓’: 현재 ‘향몽순의비’가 세워진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 ‘순의문’ 광장 주변에 위치한 밭 일대를 일컫는 속칭의 지명이다.²³⁾ ‘향몽순의비’ 입구 주변 일대는 관청 및 병사의 막사와 유력자의 거처가 들어섰던 곳이라 한다. 바로 이와 인접해 검성이왓이 위치했다는 것이다. 여기는 삼별초군의 훈련장이라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 아직도 검성이왓이라는 지명은 속칭으로 남아 있다.
- ‘장군이왓’: ‘장수왓’이라고도 한다. 향파두성의 북쪽 지역이거니와, 현재 하귀로 이어지는 큰길의 동쪽 일대를 일컫는 속칭의 지명이다.²⁴⁾ 삼별초의 지휘소, 혹은 장수의 야영장이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장군이왓에 ‘장수항아리’, 곧 돌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고, 삼별초 장수가 물을 담아 마시는데 이용했다고 한다.
- ‘돌쩌귀’: 내성 ‘대궐터’의 ‘순의문’ 앞 광장에 전시되어 있는 석제유물을 말한다.²⁵⁾ 애초, 향파두성 안팎에 산재해 있었다. 향몽유적지 정비 과정에서 수습해 현재의 위치에 모아두었거니와, 그 수가 10개에 이른다. 모두 현무암으로 거칠기는 하나, 다듬질 과정을 거쳤다. 원형으로 오목하게 파여 있는 홈들이 눈에 띈다. 문을 끼워 받쳤던 구멍이라고 한다. 곧, 향파두성의 4곳 성문을 달았던 밀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장털’: 북동 쪽 성벽 인접의 ‘안오름 일대와 남쪽의 ‘장털못’ 지역을

23) 문선희(1978), 『삼별초의 뉘』, 제은경출판사, 71~72쪽.

24) 문선희, 앞의 책, 71~72쪽.

25) 문선희, 앞의 책, 82~83쪽.

통들이 ‘장털왓’으로 일컫는다.²⁶⁾ 2개소 건물지 구역과 1개소 가마터도 확인됐다. 이 지역은 동편에서 서편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한편, 향파두성내에서 지대가 자강 낮은 곳으로 동북부 쪽 성내 물은 모두 모여들게 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연못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도 물이 고여 있었던 흔적과 아울러, 물이 남북쪽의 작은 내로 빠져나가는 지점도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기와·도기편이 수습되기도 했다.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면적의 규모가 9,000m²를 훨씬 넘는다. 그래서인지, 연못을 만들어 삼별초 지휘부가 배를 띄어 즐기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더욱이 김통정장군은 장털못 주위에 자당화도 심었다고들 한다. 자당화는 산수국을 일컫거니와, 제주에서는 ‘도체비꽃’이라 부른다. 또한 삼별초의 국화로 본다. 그래서 도체비꽃을 ‘망한 꽃’이라 해 집에 심지 않는다. 삼별초가 망했기 때문이다.

장털못 동쪽의 밭에는 감옥이 있었고, 여기에는 군법을 어긴 병사와 적의 포로를 가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지명도 속칭 ‘옥터’라고 한다.

장털은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이 가득 고여 있었는데, 토지를 활용코자 토성을 무너뜨리자 작은 골짜기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이보다 50년 앞서 장털을 농경지로 이용코자 매립했고, 1950년대 한때는 저수지로 만들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제주 삼별초 경우는 장털의 물을 향파두성과 성내 건물지 축조,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장털 일대는 삼별초와 관련해 무궁무진한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을 뿐 아니고, 성내의 건물배치·군사주둔 상황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드러날 만한 곳이라 하겠다. 그런 만큼, 2010년 들어와 시굴조사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다.²⁷⁾

- ‘기와가마터’: 향파두성 주변에는 기와를 굽던 가마 흔적이 각각 성

26) 제주도, 앞의 보고서, 98쪽.

27)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0),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지 매장문화재시굴조사 1차 지도 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안과 성 밖의 두 곳에 있다. 성안의 경우는 ‘장털’이라 칭하는 곳 일대에 위치한다.²⁸⁾ 여기는 자연경사를 그대로 이용해 축조했다고 보는데, 지형이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 이 가마터에서는 많은 양의 기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들 기와는 향파두성 내외 건물에 주로 사용됐으며 성벽 담 줄기에도 일부 쓰였다고 한다.

- ‘안오름 망대’: 안오름은 성의 북동 편 성벽 가까이에 위치한 표고 186m, 비고 15m 정도의 자그마한 오름이다. 이름이 성안에 있는 유일한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도 하나, 그보다는 넓게 들린 구릉지 안에 있는지라 안오름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더 지배적인 것 같다. 정상부에 서면, ‘대궐터’ 주변을 제외하고는 동·서·북쪽의 바다까지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 제주 앞바다는 물론이고, 서쪽의 비양도, 더 나아가 추자도 근해까지 오가는 선박들도 다 관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안오름 정상부에는 망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옛적부터 전해져 내려왔었다.²⁹⁾

통상, 구전에 따른 이야기는 사실여부를 반신반의하는 편이다. 안오름 망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2010년 발굴조사를 통해 망루의 건물지가 확인됐다.³⁰⁾ 그동안, 안오름 정상부의 경우는 조망권과 관련해 망대가 들어설 만 곳으로 추정되어 왔었던 참에 망루의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 시설물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또한 소형의 건물지도 드러났다. 여기는 망루 관련 부속건물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서는 기와 편과 각종 자기·도기 편도 수습됐다.

안오름 망대의 확인은 제주 삼별초가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군사활동을 벌였고, 이들의 규모도 상당수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삼별초군이 안오름 정상부의 망대에 올라가 제주 앞바다와 추자도 근해까지 오가는 선박들을 관망하며 보고했다고 상상해 보는 것도 허구가 아니라고 하겠다.

- ‘용성물’: 향파두성의 삼별초군이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썼던 용천수

28) 제주도, 앞의 보고서, 100쪽.
 29) 제주도, 앞의 보고서, 67~69쪽.
 30)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앞의 보고서.

였다. 향파두성은 구름 상에 축조됐고, 성내에는 음용수를 얻을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삼별초군은 본성 밖 용천수를 이용코자 반원형으로 보조성을 축조해 용천수를 보호함과 아울러, 이용했다.³¹⁾ 기록을 통해서도 “(향파두)성 안에는 솟아나는 샘이 있어 크게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³²⁾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내의 샘물이 바로 ‘옹성물’과 ‘구시물’로 이해된다.

옹성물 경우는 성의 북쪽 ‘극락사’라는 사찰 안에 있는 샘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물줄기가 가늘지만 예전에는 세차게 솟아 흘렀다고 한다. 삼별초가 주둔할 때는 김통정장군과 귀족들만 사용했었다고 한다. 삼별초 몰락 후에도 근처 마을 사람들은 제사나 굿 등 집안에 정성을 드려야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한편 옹성물은 이름이 옹성 안에 있다고 해 붙여졌다. 반면, 옹성물이 일찍이 ‘오생물’, 혹은 ‘오성물’[五生水]이라 일컬어졌음을 듣고, 옹성물이라는 이름은 인위적으로 향파두성과 관련시켜 붙여졌다고 보기도 한다.³³⁾ 현재 두 개의 물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돌담올타리를 둘러놓는 등 잘 정비되어 있다.

- ‘구시물’: 향파두성 삼별초군이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썼던 용천수였다. 성의 북동쪽 앞, ‘옹성물’ 동쪽 길가에 위치하거나, 옹성물과 함께 성내에 있었다.³⁴⁾ 삼별초군이 향파두성을 쌓을 때부터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을 최대한 활용코자 3칸의 물통을 두었다고 한다. 곧, 처음 칸은 마시는 물, 이어 순서에 따라 음식물 재료를 씻는 물, 빨랫물, 가축용 물로 구분·관리해 썼다는 것이다. 흘러 나간 물은 농업용수로 이용했다. 제주는 물이 귀했던 만큼, 물 관리에 철저했던 것이다.

삼별초군이 물의 보호를 위해 반원형의 보조성도 쌓았던 것 같고, 구시물이 들

31) 문선희, 앞의 책, 63쪽; 제주도, 앞의 보고서 96~97쪽.

3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 古蹟조 缸波頭古城

33) 오창명(2013), 「지명유래」, 『애월읍역사문화지』, 제주문화원, 423쪽.

34) 문선희, 앞의 책, 63쪽; 제주도, 앞의 보고서 97쪽.

어선 동산을 ‘구시물동산’이라 일컫는다. 특히, 샘물이 솟는 곳에서 북쪽으로 2.5m 가량 내려간 지점에서 고려시대에 설치했다고 보이는 ‘목조구유통’이 출토됐다.

목재구유 경우는 사각의 테두리 각목과 짝 내부였는데 4개의 널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바닥 널판의 면적은 470×265cm이었다고 한다. 목재판 밑은 널판 중앙 부에 각목이 놓여 있었고 20cm 가량의 황색점토를 다져놓은 것으로 봐 고정된 구유통이었다. 1993년 2월에는 물통 북쪽에서 두터운 나무판자들도 발견됐다. 삼별초군이 물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던 막사의 흔적으로 추정한다. 삼별초가 얼마나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한편, 구유는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다. 이에 구시물 북편 목조구유통은 삼별초군이 설치·사용했으며, 구시물이라는 명칭도 구유의 제주방언에 해당하는 ‘구시’에서 따와 붙여졌다고 하겠다.

구시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았으며 물맛이 좋아 상수도가 보급된 뒤에도 마을사람의 음용수로 쓰였다. 1928년 큰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었을 때 주변의 우수암, 광령, 장정 등지에서도 물을 길러왔었다. 한때는 마을청년들이 물 배급을 할 정도로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 많았다고도 이야기한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시멘트로 정비되어 있고 정주석 모양의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으며 울타리도 둘러져 있다.

향파두성과 성내 향몽 관련 유적은 저마다 제주 삼별초의 향몽활동과 행적, 더욱이 제주의 역사와 경관 및 생태의 정체성도 엿볼 수 있는 스토리를 품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들 향몽 관련 유적에 대해 보다 더 이해를 넓히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복원·정비 및 활용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례로, 향파두성의 성내 향몽 관련 유적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순행하는 답사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탐방객의 흥미와 탐구욕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로 꾸며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향파두리향몽유적지’의 탐방이 현재처럼 1시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 내내하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한다.

2) 항파두성 밖 항몽유적

제주 삼별초의 대몽항전은 여·몽연합군이 항파두성을 함락하던 원종 14년(1273) 보다 2년 6개월 여 앞서 시작됐다. 그런 만큼, 제주 삼별초의 대몽항전 관련 유적은 항파두성 밖에도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제주의 항몽유적은 제주의 북반부 동·서 양측으로 약 43km 거리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것이다.³⁵⁾

이들 항파두성 밖의 항몽 관련 유적은 물 관련 식·생활용수, 망대와 진지, 포구, 기타 등의 4가지로 대별해 나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물 관련 유적으로는 ‘장수물’, ‘유수암찬’, ‘짐수못’ 등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장수물’·‘유수암찬’은 용천수, ‘짐수못’은 봉천수에 해당한다. 망대와 진지 유적은 ‘극락봉 진지’, ‘바굽지오름’, ‘붉은오름’, ‘진군마를’, ‘망이리 동산’, ‘살맞은돌’, ‘삼심봉’, ‘동계원 진지’를 거론할 수 있다. 포구 유적은 ‘군항포’, ‘조천포’, ‘함덕포’, ‘조공포’, ‘애월포’, ‘명월포’ 등이다. 기타 유적은 ‘기와가마터’, ‘김수장군추정묘’, ‘고려충신김수장군유적비’, ‘송담천 전적지’, ‘환해장성’, ‘종신당 터’, ‘태산사 절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항몽유적의 경우도 상당수가 제주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이용해왔었던 용천수 및 봉천수와 관련을 맺거나, 혹은 제주 지역이 화산섬임을 드러내는 오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포구 경우도 제주의 생태적 특색을 여실히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포구는 제주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마을이 들어섰던 곳이었던 만큼, 마을 형성의 입지적 조건이 가장 뛰어났다. 곧, 제주는 마을이 선사시대부터 고려 충렬왕 26년(1300)까지만 하더라도 해안지대의 포구를 끼고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는 半農半漁를 통해서만 먹거리 마련이 가능했던 여건 때문이었거니와,³⁶⁾ 그 이면에는 제주의 토질이 화산활동을 통해 퇴적된 화산회토라 농업생산력이 낮았던

35) 김일우(2008), 「고려시대 제주 지역의 대몽항전 관련 유적과 그 활용 방향」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8-2, 15~21쪽.

항파두성 밖 항몽유적과 관련해서는 위의 논문에서 일일이 제시하면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유형별로 명칭만 거론하고자 한다. 또한 이곳 논의는 위의 논문, 21~22쪽의 내용도 참고·서술했다.

36) 김일우(2004), 「고려시대 탐라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해상활동」, 『한국사학보』 18, 9~33쪽.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요컨대, 향파두성 밖 제주 향몽유적의 경우도 상당수가 제주의 경관 및 생태의 정체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제주 향몽유적 관련 문화콘텐츠화의 방향과 내용

제주 향몽유적 관련 문화콘텐츠화는 이들 유적이 지닌 의미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더욱이 역사유적 경우는 그 역사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선행되어야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용성이 큰 활용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제주 향몽유적이 지닌 역사성을 제주의 정체성과도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제주 향몽유적은 제주가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큰 격변을 겪어 왔었던 예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존재이다. 제주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및 일본 열도 지역 등을 잇는 중간적 지점이고, 멀리 동남아 지역으로도 열려 있는 해상에 자리 잡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제주는 한반도와 중국 및 일본 지역과 잦은 교류를 가졌던 한편, 이들 지역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로 주목되어 왔었다. 또한 외침에 노출되는 경우도 잦았다. 이 때문에 제주 대몽항전 관련 유적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 향몽유적은 제주의 고유한 경관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용천수와 봉천수 및 오름의 존재와 함께, 포구 지역에 마을이 우선적으로 들어섰던 역사적 사실, 그리고 환해장성이 현무암의 자연석으로 쌓아졌다는 점 등은 제주의 지질과 지형이 화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주의 향몽 관련 유적은 제주가 우리나라 역사, 더 나아가 세계사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는 존재이다. 또한 제주 경관과 생태의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향파두성과 그 밖의 향몽유적은 고려의 대몽항전을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시각에서도 조명함과 아울러, 제주역사와 경관 및 생태의 독특함을 찾아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문화콘텐츠화 방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서는 다음의 사실을 들 수 있다.

첫째,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항파두성과 성내 유적에 대해 종합적 학술조사를 거친 후, 대몽항전이 전개되던 시기의 유적을 재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보순행하는 동선을 마련하고, 거기에 얽힌 역사·경관·생태적 사실을 생생하며 구체적으로 전해 줄 수 있는 자료집을 발행한다. 이로써 제주역사와 경관 및 생태 등을 아울러 이해할 수 있는 문화기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항파두성 밖 항몽유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는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곳도 있으나, 상당수가 구전이나 지명 해석, 혹은 대몽항전의 전개 상황을 통한 유추 등을 근거로 삼아 항몽 관련 사실을 끌어내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편이다. 그런 만큼, 항파두성 밖 항몽 관련 유적이 실제로 제주 삼별초의 대몽항전과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우선적으로 밝히는 조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주의 항몽유적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항파두성내 발굴조사를 거친 후, 제주 삼별초가 대몽항전을 전개할 때 가장 중심이 되었던 건물 등을 보수·정비하고, 이를 항파두성내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되는 유물의 전시는 물론이고, 제주뿐만 아니라 고려의 대몽항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또한 100여 년 몽골의 제주경영 관련 역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주와 몽골 교류의 전시관으로도 활용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저항했던 역사를 생생하며, 전체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한편, 제주문화의 복합성을 깨닫는 산교육장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다 하겠다.

셋째, 항파두성의 정비와 연계된 보존·활용의 방향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항파두성은 물론이고, 성 밖 항몽 관련 유적도 포함·소개하는 자료집을 만든다. 자료집 내용은 각 유적과 제주에서 벌어진 대몽항전의 전개과정을 유기적이고, 순차적으로 연계해 서술함으로써 제주 삼별초의 대몽항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케 한다. 이로써 자료집은 제주 삼별초의 대몽항전을 이해하는 사회교육용 자료, 더 나아가 탐방객의 안내서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항파두성 밖 항몽 관련 유적의 경우, 그 유적지가 제주 삼별초의 대몽

향전 전개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가졌는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또한 표지판은 기존에 향몽 관련 유적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검토 결과 향몽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유적지에도 설치하고, 거기에는 향몽 관련 사실의 여부를 검토한 조사과정과 내용을 서술한다. 이로써 향몽 관련 유적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몽 관련 유적지를 찾아오는 한편, 향몽 관련 유적이 문화자원화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셋째로는 향파두성과 아울러, 기타 향몽 관련 유적에 얽힌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전설과 구전 등의 내용도 애니메이션, 혹은 영상물로 제작·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몽 관련 유적지를 찾아가 보려는 의욕을 갖게 하며, 어린 학생들에게도 보다 흥미롭고, 쉽게 제주 삼별초의 대몽항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밖에, 향몽 관련 유적지를 ‘삼별초와 성(城) 유적’·‘삼별초와 오름 유적’·‘삼별초와 물 유적’·‘삼별초와 포구 유적’과 같은 테마의 답사코스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해 순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테마별 향몽 관련 유적지 답사코스는 탐방객으로 하여금 보다 넓은 제주 지역을 찾다니며, 제주의 다양·독특한 경관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제주 지역 대몽항전 관련 유적의 문화콘텐츠화는 우리나라의 외세항쟁사와 아울러, 제주역사와 경관 및 생태가 맞물려 이루어진 문화관광코스의 창출과 함께, 산교육장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4. 맺음말

고려의 대몽항쟁은 우리나라의 외세항쟁에서 가장 주목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제주는 고려의 대몽항쟁 전개와 관련해 주목되는 곳으로 손꼽힌다. 이는 향파두성을 비롯해 제주의 여러 곳에 산재한 향몽 관련 유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곧, 제주는 향파두성 외에도, 물 관련 식·생활용수, 망대와 진지, 포구, 기타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 향몽유적이 제주도 북반부의 동·서 양측으로 약

43km 거리에 걸쳐 있듯이, 매우 길고, 또한 광범위한 곳에 다양·다종의 항몽 관련 유적이 26여 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이들 유적 가운데 제주 삼별초가 최후의 항몽거점으로 삼았던 항파두성과 그 주변의 경우는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라는 이름으로 1997년에 국가사적 제 396호로 지정되고, 계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었다. 근래에 들어와서도 항파두성의 보존·활용계획에 대해 수차례 용역이 실시됐다.

항파두성의 활용과도 연계된 제주 항몽유적의 문화콘텐츠화와 관련해서는 후 세들에게 국가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밀도 있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사교 육장화와 직접 이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제주역사와 경관 및 생태 등의 남다름을 체험적으로 엿볼 수 있는 문화기행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문화 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도 나아가야 한다. 게다가 제주의 항몽유적은 탐라문화권 정비대상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제주 도내의 어느 역사유적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는 제주의 항몽유적이 지닌 역사성과 관련해 살펴볼 때 자 명하다고 하겠다.

제주 항몽유적의 역사성은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한데, 우선은 오늘날 우리 국가와 그 문화가 존립하고, 자주적으로 이어 나아가는데 기여함과 아울러, 동아시아권의 역사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로로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 도내의 그 어느 역사유적보다도 우리나라 역사와의 유기적 결합도가 높은 한편, 제주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그 독특함을 대면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사성도 지니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의 항몽유적·유물은 13세기 당시의 보존도가 높아 고고학·미술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자못 큰 만큼, 13세기 고려의 역사문화를 생생히 해명하는 역사적 자료서의 가치도 높다. 곧, 제주 항몽유적은 이들 4가지 관 점의 역사성을 지닌 만큼, 제주의 가장 대표적 역사유적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 이다. 특히,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일대는 항파두성의 존재와 아울러, 상당한 부분이 공유지에 해당하며, 민가와 상가도 드문 만큼, 제주의 항몽유적 관련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공간 확보가 그 어느 곳보다도 적절한 여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제주 지역 대몽항전 관련 유적의 문화콘텐츠화는 우리나라의 외세항

쟁사 및 동아시아사의 문화적 동질성과 아울러, 제주역사와 경관 및 생태가 맞물려 이루어진 문화자원화의 창출과 함께, 산교육장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적절함을 재차 말해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진철(1974), 「蒙古의 침입에 대한 항쟁」,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 김일우(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 김일우(2003),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 김일우(2004), 「고려시대 탐라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해상활동」, 『한국사학보』 18.
- 김일우(2008),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 김일우(2008), 「고려시대 제주 지역의 대몽항전 관련 유적과 그 활용 방향」 『한국 사진지리학회지』 18-2.
- 김일우(2013), 「탐라와 몽골문화의 교류와 탐라사회의 변화」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 김일우(2015), 「제주 강정동 ‘대궐터’ 유적의 역사적 성격- 고려시대 몽골의 제주 지배기와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60.
- 김일우·이정란(2002),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 『제주도사연구』 11.
- 문선희(1978), 『삼별초의 녀』, 제은경출판사.
- 민현구(1991), 「蒙古軍·金方慶·三別抄」, 『한국사시민강좌』 8.
- 북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2002), 『제주향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 제주문화예술재단.
- 오창명(2013), 「지명유래」, 『애월읍역사문화지』, 제주문화원.
- 윤용혁(1994), 「삼별초의 붕괴와 남천(南遷)에 관하여」,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 국사학논총』 상, 일조각.
- 윤용혁(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 윤용혁(2004), 「13세기 동아시아 역사와 “삼별초” 문화」, ‘강화·진도·북제주 군 제4차 “삼별초” 학술 세미나’ (기조발표문), 북제주군.
- 윤용혁(2014),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혜안.
- 이익주(1994), 「고려후기 몽고침입과 민중항쟁의 성격」, 『역사비평』 24.
- 제주고고학연구소(2011), 「사적 396호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

사(2차) 간략보고 서」,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도(1998), 『국가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지』,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10), 『제주, 몽골을 만나다』(책임연구원 김일우).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0),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지 매장문화재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 및 현 장설명회」 자료집,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2),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중
합정비계획』,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2006),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
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2008), 『탐라문화권발전기본계획』, 제주
역사문화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2009), 『탐라문화권발전세부계획』, 제주
역사문화진흥원.

E-mail: ilwoo60@nate.com

접수일: 2015년 10월 14일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일: 2015년 10월 30일~ 11월 8일

게재결정일: 2015년 11월 10일